KOSDAQ |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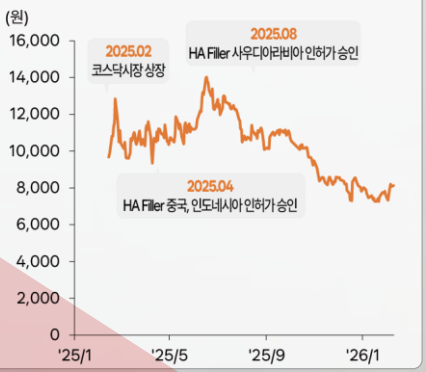
동방메디컬 (240550)

안정적 한방 기반 위에 에스테틱 성장 엔진을 얹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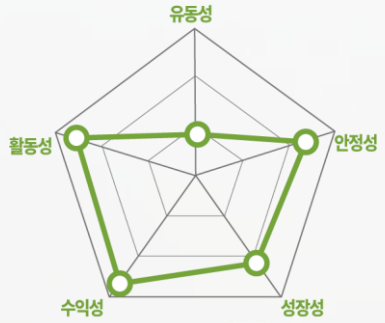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동방메디컬은 한방침, 부항 등 전통 한방 의료기기를 기반으로 안정적 매출을 확보하는 동시에, HA 필러, 흡수성 봉합사 등 미용성형 의료기기를 통해 성장성을 확대하는 의료기기 전문기업
- 2026년에는 인도네시아 공장 정상화에 따른 한방 부문 매출 확대 및 수익성 회복에 주목할 필요
- 2026년 필러 제품의 브라질 ANVISA 승인과 흡수성 봉합사의 중국 NMPA 인허가 기대
- 2026년 추정실적 매출 1,290억원, 영업이익 216억원, 지배주주순이익 94억원 기준 주가 밸류에이션은 PER 18.1배, PBR 1.3배 수준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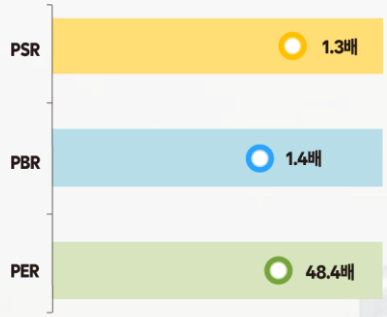


재무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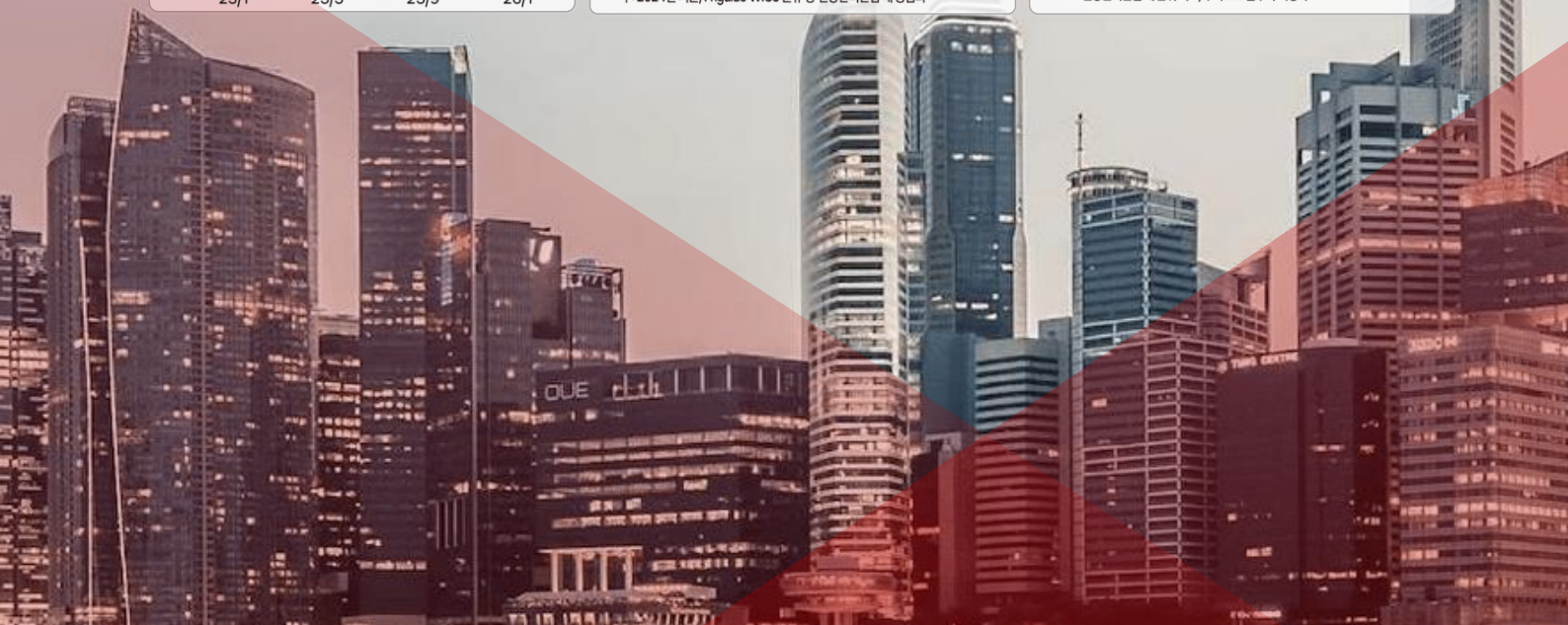


주: 2024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건강관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3Q25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건강관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동방메디컬 (240550)

KOSDAQ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Analyst 박선영 sypark@kirs.or.kr
RA 정수현 sh.jeong@kirs.or.kr

전통 한방 기반의 안정성과 에스테틱 성장의 결합 구조

동방메디컬은 일회용 한방침, 일회용 부항컵 등 전통 한방 의료기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반복 매출 구조를 확보한 가운데, 미용성형 의료기기(필러, 흡수성 봉합사 등)를 통해 성장성을 확대하고 있는 의료기기 전문기업이다. 2025년은 인도네시아 공장 이전에 따른 일시적 침체 구간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생산 정상화와 함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구조다.

인도네시아 생산 정상화, 필러 고성장, 해외 인허가 모멘텀 기대

동방메디컬의 2026년 핵심 투자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 정상화에 따른 한방침 매출 회복과 원가 구조 개선으로 수익성 정상화가 기대된다. 둘째, 주요 해외 파트너와의 중장기 통합 계약을 기반으로 필러 중심의 구조적 해외 매출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필러 제품의 브라질 ANVISA 승인과 흡수성 봉합사의 중국 NMPA 인허가는 대형 시장 진입을 의미하는 중장기 성장 옵션으로, 승인 여부와 매출 전환 속도가 향후 성장의 추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년 실적 개선과 정상화 국면 진입

2026년 연결 매출액은 1,290억원, 영업이익 216억원, 지배주주순이익 94억원을 전망한다. 인도네시아 공장 정상화에 따른 한방침 수익성 회복과 필러 중심의 해외 매출 확대가 이익 레버리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가 수준은 상장 이후 일시적 이익 저점을 반영한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되며, 2026년 실적 개선 가시화 여부가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억원)	814	909	1,051	1,137	1,290
YoY(%)	N/A	11.6	15.7	8.2	13.4
영업이익(억원)	61	165	150	163	216
OP 마진(%)	7.5	18.1	14.3	14.3	16.7
지배주주순이익(억원)	32	98	29	53	94
EPS(원)	194	559	167	258	452
YoY(%)	N/A	187.6	-70.2	55.2	75.0
PER(배)	0.0	0.0	0.0	30.2	18.1
PSR(배)	0.0	0.0	0.0	1.4	1.3
EV/EBITDA(배)	2.7	1.6	1.3	6.8	5.4
PBR(배)	0.0	0.0	0.0	1.4	1.3
ROE(%)	8.8	23.5	4.6	5.3	7.6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2/10)		8,190원
52주 최고가		14,030원
52주 최저가		7,240원
KOSDAQ (2/10)		1,115.20p
자본금		87억원
시가총액		1,704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21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0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6억원
외국인지분율		2.64%
주요주주	김근식 외 4 인	48.62%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9.5	-23.9	
상대주가	-6.9	-44.8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회사 개요

동방메디컬은 한방의료기기와 미용성형 의료기기 전문기업

동방메디컬은 2014년 설립된 한방 의료기기와 미용성형 의료기기를 주력으로 제조·판매하는 의료 전문기업으로 2025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주요 제품으로는 일회용 한방침, 일회용 부항컵 등의 한방 의료기기, 필러, 캐뉼러, 각종 니들류 등의 미용성형 의료기기가 있으며, 동사는 '동방침', '동방 부항컵', '엘라스티 필러', '엘라스티 스레드', 'DBC', 'Acuprime' 등의 고유 브랜드를 바탕으로 국내 및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등 전세계 약 5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동사의 전신은 1985년 설립된 '동방침구제작소'로, 초기에는 한방 치료에 사용되는 침 및 부항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한방 의료기기 제조 노하우를 축적하며 사업을 확장해왔고, 2014년 12월 주식회사 동방메디컬로 법인 전환함으로써 본격적인 기업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법인 전환 이후에는 생산 설비의 자동화, 품질 관리 체계 고도화, 해외 인증 확보 등을 통해 의료기기 전문 제조사로서의 기반을 강화해왔다.

이후 동사는 전통 한방 의료기기를 기반으로 하되, 이에 안주하지 않고 미용·성형 의료기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특히 비수술적 시술 수요가 확대되는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 환경 속에서 히알루론산(HA) 필러, 흡수성 봉합사(리프팅 실), 캐뉼러 및 각종 니들류 등 미용 의료기기 제품군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왔다. 동사는 이러한 성장 과정을 바탕으로 2025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상장 자금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 생산능력(CAPA) 증설, 해외 법인 및 글로벌 유통망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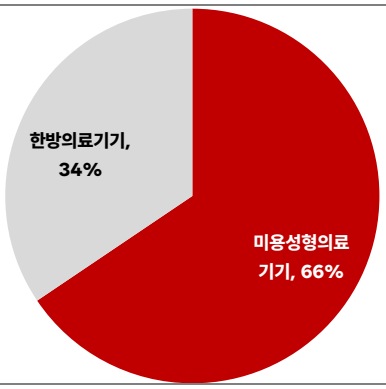
2025년 9월말 기준, 동방메디컬의 최대주주는 김근식 대표이사로 48.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8.50%이다. 추가로 5% 이상 신고된 주주는 없으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키움-케이엔티 라이징스타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2.9%, 증권금융(유통) 2.4%, NH투자증권(브이아이피자산운용) 1.8%, 로프티록 메디컬 신기술조합 1호 1.4%의 보유 지분이 있다.

회사 연혁

설립기 (1985~2013) 국내외 한방의료기기 시장 선도 업체 도약	성장기 (2014~2021) 법인전환 및 미용의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도약기 (2022~) 글로벌 미용의료시장 주도
1985.11 동방침구제작소 설립	**2014.11** (주)동방메디컬 법인전환	**2022.03** 벤처기업 인증
1994.12 자가공장 준공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HA Filler 중국 NMPA 획득**
2001.03 중국 현지 생산법인 설립	**2015.11** 캐나다 CAMCAS 획득	**2022.12** 매출 600억원 달성
2003.03 EU 현지 판매법인 설립 (영국)	ISO 9001:2008 획득	**2023.02 인도네시아 현지 제조법인 설립**
2003.0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ISO 13485:2003/29 12 획득	인도네시아 현지 판매법인 설립
2004.11 중국 현지 생산판매법인 설립	CE 획득	**2023.04**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선정
2009.12 (주)필텍 설립	**2016.12 필러 공장 완공 (경기도 용인)**	**2023.06** 국내 최초 PCL 안면조직고정용실
2010.12 매출 200억원 달성	**2017.11** 2,000만불 수출탑 수상	식약처 IND 승인
2011.11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	**2018.01 HA Filler 런칭**	**2023.12** 매출 700억원 달성
12년 연속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2018.12** 매출 400억원 달성	**2024.04 동방메디컬 - 중국 신양 JV설립**
2012.03 국내 최초 일회용 매선침(흡수성봉합사)	**2019.03** FDA 510(k) Polydioxanone Suture 등록	**2024.09** HA filler 태국, 인도네시아 인증
개발 및 런칭	**2020.02 동방메디컬-중국 아이메이커 JV설립**	**2024.10 브라질 BGMP 인증 (용인 필러공장)**
	2020.03 CE인증 - 흡수성봉합사	**2025.02 코스닥 시장 상장**
		2025.04 리도카인 함유 HA Filler 중국 NMPA 인증
		리도카인 함유 HA Filler 인도네시아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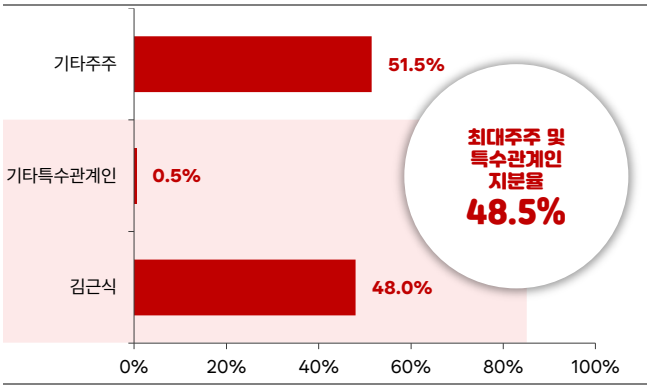
자료: 동방메디컬, 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문별 매출비중(3Q25 누적 기준)



자료: 동방메디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현황(2025년 9월말 기준)



자료: 동방메디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주요 사업 및 주요 제품

동방메디컬은 전통 한방 의료기기에서 축적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성이 높은 에스테틱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주요 사업 영역은 한방의료기기, 미용성형의료기기, 기타 의료 소모품 등으로, 의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제품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속적인 재구매 수요에 기반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2025년 9월말 연결 매출액 838억원 기준으로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은 미용성형의료기기 66%, 한방의료기기 34%로 구성되며, 지역별 매출비중은 국내 79.6%, 해외 20.4%이다. 단, 사업보고서 상의 수출비중은 20.4% 수준이나, 국내 바이어를 통한 해외 수출을 감안 시 실질적인 수출 비중은 약 80% 수준으로 추정된다.

(1) 한방 의료기기

대표제품: 일회용 한방침, 일회용 부항컵

한방 의료기기 부문은 동방메디컬의 가장 오래된 사업 영역이자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사업이다. 동사의 전신인 '동방침구제작소' 시절부터 이어져 온 한방침 및 부항 관련 제품은 현재까지도 동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주요 제품군으로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은 일회용 한방침과 일회용 부항컵이다. 한방침은 침술 치료에 사용되는 기본 의료기기로, 동방메디컬은 다양한 규격과 형태의 침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호침, 장침, 미용침 등 시술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동방침' 브랜드 및 'Acuprime'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한의원 및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제품으로, 수요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을 가진다.

동사는 한방침 제조 과정에서 자동화 설비를 적극 도입하여 생산 효율성과 품질의 균일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코일링, 조립, 연마 등 주요 공정이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대량 생산에 따른 원가 경쟁력과 함께 제품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 경쟁력은 한방침 시장에서 동사가 오랜 기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부항컵 역시 동방메디컬의 주요 한방 의료기기 제품 중 하나다. 일회용 부항컵은 위생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의료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동사는 해당 제품군에서 국내 시장 내 높은 인지도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한방 의료기기 부문은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하며,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이나 트렌드 변화에 덜 민감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2) 미용성형 의료기기(에스테틱)

대표제품: HA필러, 흡수성 봉합사

미용성형 의료기기 부문은 동방메디컬의 중장기 성장성을 책임지는 핵심 사업 영역이다.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비수술적 시술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동사는 히알루론산(HA) 필러, 흡수성 봉합사(리프팅 실), 캐뉼러 및 각종 니들류 등 다양한 제품군을 구축하며 사업을 확대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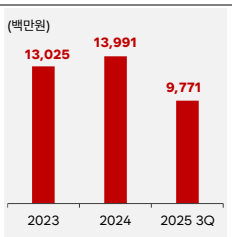
엘라스티(Elasty)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HA 필러 제품은 동사의 에스테틱 사업을 상징하는 핵심 제품군으로, 동사는 점성, 탄성, 응집력 등 물성에 따라 용도별로 세분화된 필러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얼굴 윤곽 개선, 주름 보완, 볼륨 증대 등 다양한 시술 목적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술자의 선호와 시술 부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흡수성 봉합사(스레드)는 피부 리프팅 및 조직 고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에 사용된다. 흡수성 봉합사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체내에서 흡수되는 소재를 기반으로 하여, 미용성형 시술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다. 필러와 스레드는 모두 시술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큰 제품군이라는 점에서 동사의 수익성 개선과 외형 성장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된다.

캐뉼러, 메조 니들, 시린지 등 각종 니들류는 필러 및 스레드 시술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소모품이다. 동사는 이러한 니들, 캐뉼러 제품 등을 자체 생산함으로써 에스테틱 시술에 필요한 주요 소모품을 포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방의료기기 주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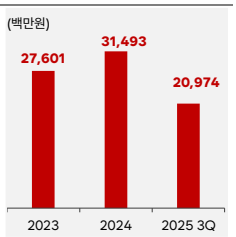
일회용 한방침



- 1986 년 한국 최초 일회용침 개발 및 보급
- 2014년 국제표준 (ISO) 제정
- 2001년 부터 중국 자회사를 통한 중국 내수 경쟁력 확보
- 2023년 국내 시장 점유율 약 54.55%

주요매출처		한방병의원, Lasha (미국), Meridius Medical Europe (EU)
주요 경쟁사	국내	케이엠에스, SMC, 다나메디칼
	해외	HWATO (중국), Cloud & Dragon (중국), SEIRIN (일본)

일회용 부항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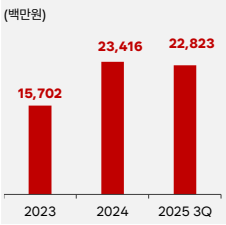
- 국내 최초 일회용 부항 제품 개발 출시
- 2012년 건강보험행위 급여목록 등재
- 2022년 건강보험행위 급여목록 건식부항요법 확대 포함
- 2023년 국내 시장 점유율 약 61.31 %

주요매출처		한방병의원
주요 경쟁사	국내	다나메디칼,성호통상
	해외	HWATO (중국)

자료: 동방메디컬, 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미용성형의료기기 주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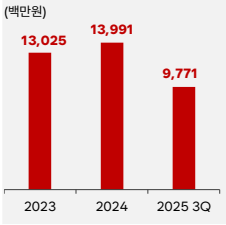
엘라스티 HA필러



- 2018 년 최초로 의료기기 허가 획득
- 고수준의 가교제 및 TLW기술 적용, 가교공정에서 부산물 제거를 통해 안전성 강화 (세척 효율 극대화)
- 중국, 인니, 브라질, 러시아, 태국, 베트남 등 해외 인허가를 통해 시장 확장

주요매출처		So-young Medical (중국), PHO Phama (브라질), AVA Pharma (태국)
주요 경쟁사	국내	휴젤, 메디톡스, 바이오플러스, 제테마 등
	해외	엘러간, 레스틸렌, 멀츠, 테옥산 등

엘라스티 흡수성봉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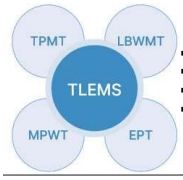
-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대량생산능력 및 기술로 경쟁력 확보
- 시장외연 확대: 한국 - 최초 PCL 안면조직고정용실로 최초 임상
- 중국 및 미국 - 최초 안면조직고정용실로 임상 중 (삼성병원, 아산병원)
- 해외 시장에서 안면조직고정용실 리더기업으로 발돋움 예정

주요매출처		IMEIK (중국), PHO Phama (브라질), AVA Pharma (태국), DBM (미국), PRSS (일본), KMT (UAE)
주요 경쟁사	국내	휴젤, 한스바이오, 씨지바이오
	해외	APTOS, NOVATHREAD 등

자료: 동방메디컬, 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미용성형의료기기 주요 제품

국내 유일 자체생산 Meso needle 및 기타 니들류



- TPMT: 금속 박편관 기술
- LBWMT: 정밀 레이저 빔 용접기술
- EPT: 전기, 화학 폴리싱 연마기술
- MPWT: 정밀 고압수 세척기술

엘라스티 포스트랩 (재생크림)

- 일반 재생 크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POST LAB ODD 기술로 피부 위에 얇고 투명한 보호막을 형성하여 유효 성분이 지속적으로 피부에 전달되는 기술
- 바르면 15분 후 피부 위 보호막을 형성하고 하루종일 촉촉함이 지속, 제거 시 미온수로 롤링하면 자극 없이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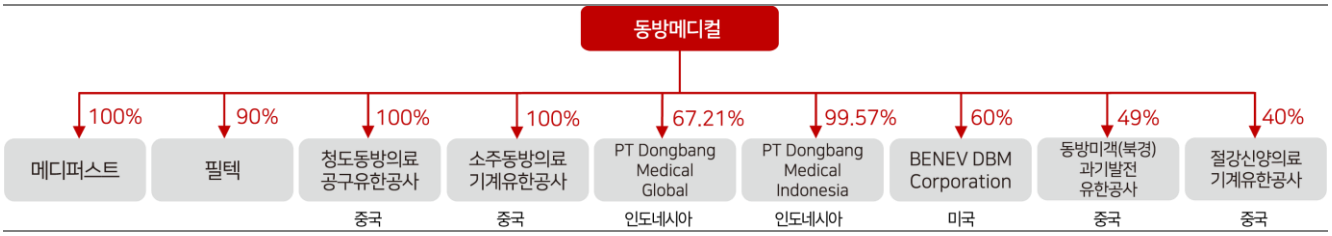
자료: 동방메디컬, 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종속기업

동방메디컬은 ㈜필텍, ㈜메디퍼스트와 함께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등에 설립된 9개의 해외 종속기업을 통해 제조 및 유통 기능을 분산, 확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들 종속기업은 의료기기 제조, 가공, 도소매 및 현지 유통 기능을 수행하며, 동사의 글로벌 사업 전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 법인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을 담당하며, 현지 시장 대응 및 아시아권 공급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한방침 등 일부 제품의 현지 생산을 담당하는 구조로, 인건비 및 물류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함께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법인은 도소매 중심의 사업 구조를 통해 북미 시장 내 유통망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속기업 구조는 동방메디컬이 단일 국내 생산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별 생산·유통 거점을 활용한 글로벌 분산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각 종속기업의 실적 기여도 및 수익성은 연결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종속회사



자료: 동방메디컬, 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한방 의료기기 산업

산업 개념 및 범위

한방 의료기기 산업은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와 의료 소모품을 포괄하는 산업이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한방침, 부항기(부항컵), 뜸기구, 약침 관련 기기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한방침과 부항컵은 한의원 진료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소모성 제품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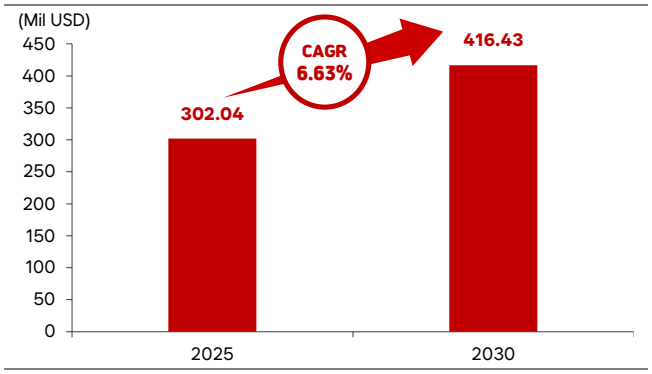
시장 규모 및 성장성

글로벌 한방 의료기기 중 침(일회용 침 포함) 제품 시장과 관련해,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글로벌 Acupuncture Needles Market 규모는 2025년 약 3.0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6.63%로 성장해 2030년 약 4.16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침 제품 중에서도 일회용 침(disposable needles)은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 환경에서 위생 및 감염 관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일회용 제품 중심의 수요 구조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침 시장의 성장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 통증 관리 수요 증가와 함께, 약물 치료를 보완하는 비약물적 치료 수단으로서 침 치료의 제도적 정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부항 관련 제품 시장의 경우, 제품 정의에 따라 시장 규모의 편차가 존재하나, Zion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Cupping Devices Market 규모는 2025년 약 4.98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11.5%로 성장해 2034년 약 14.7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수치는 의료기관용 부항 기기뿐 아니라 홈케어 및 웰니스용 부항 기기를 포함한 개념으로, 순수 의료기기 관점에서는 다소 넓은 범위의 추정치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항 시장은 의료 영역을 넘어 스포츠 재활, 피트니스, 웰니스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제품 형태 역시 전통적인 부항에서 사용 편의성을 높인 신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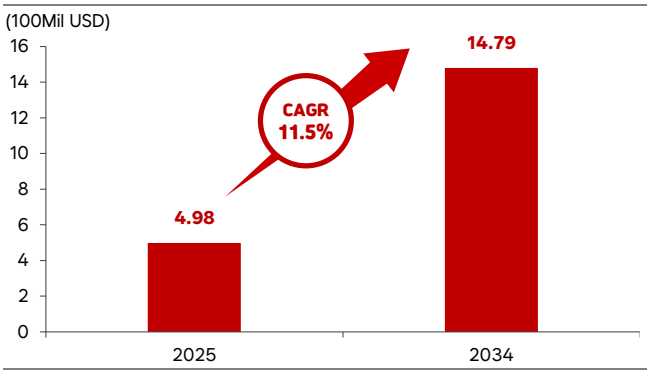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한방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 통증 관리 수요 증가,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선호 유지, 위생·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일회용 제품 사용 확대 등에 기반하고 있다. 기술 혁신이나 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급격한 외형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반복 수요를 기반으로 한 성숙 산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쟁의 핵심 요소는 신기술보다는 제조 효율성, 품질 안정성, 원가 경쟁력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Acupuncture Needles Market(한방침)



자료: Mordor Intelligenc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upping Devices Market(글로벌 부항)



자료: Zion Market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미용·성형 의료기기(에스테틱) 산업

산업 개념 및 범위

미용·성형 의료기기(에스테틱) 산업은 외모 개선, 피부 재생, 윤곽 보완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을 포괄하는 산업이다. 전통적인 외과적 성형수술 중심의 시장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비수술적·저침습(minimally invasive) 시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히알루론산(HA) 필러와 흡수성 봉합사(리프팅 실)는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성형수술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에스테틱 의료기기 산업은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등의 에너지 기반 장비와 필러, 흡수성 봉합사, 니들, 캐뉼러 등의 시술재·소모품으로 구분된다. 이 중 동방메디컬이 속한 영역은 후자인 소모성 시술재 중심의 시장으로, 시술 빈도 증가에 따라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를 갖는다.

시장 규모 및 성장성

글로벌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장 중에서도 더말 필러(Dermal Fillers) 시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더말 필러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62.1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10.9%로 성장해 2033년 약 141.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도 HA 필러는 안전성과 시술 편의성 측면에서 여전히 주류 제품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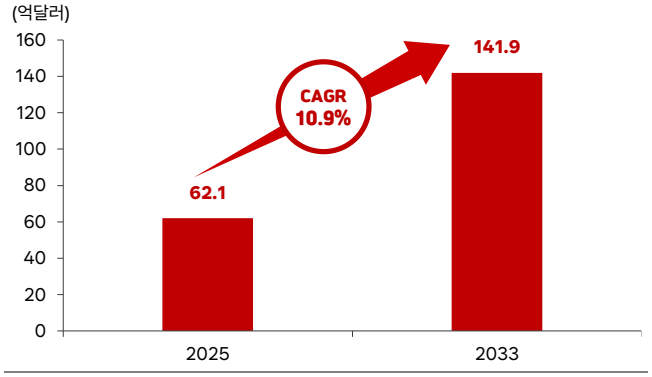
흡수성 봉합사(리프팅 실)에 해당하는 Aesthetic Threads Market의 경우, Grand View Research는 시장 규모가 2023년 약 1.39억 달러에서 2030년 약 2.18억 달러로 확대되며, 2023년부터 2030년까지 CAGR 6.8%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필러 대비 시장 규모는 작지만, 리프팅 및 안티에이징 수요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분야로 평가된다.

에스테틱 의료기기 산업은 절대 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률도 높은 필러 시장과,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스레드 시장이 공존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기에 니들·캐뉼러 등 동반 소모품 수요가 결합되면서, 시술 빈도 증가에 따른 반복 매출 구조가 형성된다.

성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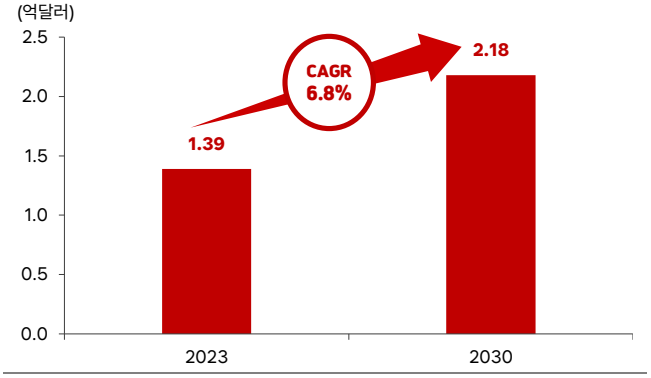
에스테틱 의료기기 산업의 주요 성장 요인은 첫째, 비수술적·저침습 시술에 대한 선호 증가다.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용과 회복 부담이 적은 시술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필러·스레드 등 소모성 시술재 수요 확대로 직결된다. 둘째, 미용 시술의 대중화 및 연령층 확대다. 과거 특정 연령대나 성별에 국한되었던 미용 시술이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면서, 반복적인 시술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셋째, 아시아 및 신흥국 시장의 성장이다. 소득 수준 향상과 의료 접근성 개선에 따라, 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의 핵심 성장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에스테틱 의료기기 산업은 성장성이 높은 만큼 경쟁 또한 치열하며, 국가별 인허가 규제, 가격 경쟁, 브랜드 인지도 및 유통망 확보 여부가 기업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글로벌 더말 필러 시장



자료: Grand View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흡수성 봉합사 시장



자료: Grand View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 정상화에 따른 한방침 매출 회복 및 수익성 개선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 정상화로 2026년부터 한방침 매출 회복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전망

동방메디컬의 한방 의료기기 사업은 2025년 일시적인 부침을 겪었으나, 이는 구조적 경쟁력 약화가 아닌 생산 거점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조정 국면으로 판단된다. 2026년부터는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한방침 중심의 매출 회복과 함께 수익성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한방 의료기기 부문 실적은 인도네시아 생산설비 이전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한방침은 자동화 설비를 기반으로 대량 생산되는 소모성 제품 특성상, 생산 중단이나 이전 과정에서 물량 공백이 발생할 경우 단기 실적 변동성이 불가피하다. 2025년 실적에서 나타난 한방 부문의 매출 감소는 이러한 물량 공백과 이전 관련 비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동사의 한방 의료기기 수요 기반이나 경쟁력 자체가 훼손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방 의료기기 사업의 구조적 특성은 안정적인 수요와 반복 구매에 있다. 한방침과 부항컵은 한의원 진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의료기기로, 경기 변동이나 의료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위생·감염 관리 기준 강화에 따라 일회용 한방침 사용 비중은 구조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흐름은 중장기적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산 차질이 해소되는 시점에는 비교적 빠른 매출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26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회복 국면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9월 말 기준 웅천1공장의 일부 생산설비가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이전된 상태로, 2026년 초부터 인도네시아 공장 초두 물량이 국내로 유입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가동 안정화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생산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5년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매출 공백이 해소됨을 의미하며, 한방침 중심의 매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측면에서의 개선 효과는 매출 회복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공장은 인건비 및 일부 비용 구조 측면에서 국내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 거점으로, 가동이 정상화될 경우 한방침의 단위당 생산 원가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2025년에 발생했던 이전 관련 비용과 비효율이 제거되면서, 한방 부문 전반의 판관비 부담 역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부터 한방 의료기기 부문이 매출 회복과 동시에 이익률 정상화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주요 파트너사와의 통합 계약 기반 해외 매출 확대에 따른 필러 고성장 지속

해외 주요 파트너와의 중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필러 매출의 구조적 성장 기대

동방메디컬은 주요 해외 파트너사와의 통합계약을 기반으로 미용 필러 중심의 구조적인 해외 매출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실적은 동사의 미용 필러 사업이 성장 궤도에 진입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동사의 2025년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액 838억원 중 미용성형 의료기기 매출액은 554억원(매출비중 약 66%), 그 중에서도 필러 매출액은 22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3분기 누적 기준 필러 매출은 2024년 연간 필러 매출액(234억원)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하며, 2025년 연간 기준으로 볼 때 필러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용 필러 시장은 글로벌 에스테틱 산업 내에서도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분류된다. 비수술적·저침습 시술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면서, 필러는 주름 개선, 볼륨 보강, 윤곽 개선 등 다양한 시술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필러는 일회성 시술이 아닌 주기적인 관리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시장 환경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한다.

다만 최근 국내 필러 업체들의 경우, 국내 시장 내 경쟁 심화 및 가격 압박으로 인해 성장 둔화 또는 수익성 하락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사의 필러 매출 구조는 내수 중심이 아니라 해외 파트너 기반 수출 중심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동사는 중국, 브라질, 인도, 동남아, 러시아 등 주요 국가의 현지 파트너사와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일부 계약은 3~5년 단위, 수백만 달러 규모로 설정되어 있어 중장기 매출 가시성을 확보한 구조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국내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제한한다. 동사의 필러 매출은 특정 국가 내 단기 가격 경쟁에 좌우되기보다는, 현지 파트너의 유통망과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물량이 확대되는 구조에 가깝다. 특히 중남미 및 아시아 신흥국 시장은 아직 필러 보급률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침투율 상승에 따른 구조적 성장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필러 사업은 니들, 캐뉼러, 스레드 등 동반 제품군과의 연계 판매를 통해 매출 레버리지를 창출한다. 필러 물량 증가 시 시술에 필요한 주사침 및 관련 소모품 수요가 동반 확대되며, 이는 미용성형 의료기기 사업 전반의 외형 성장으로 이어진다. 즉, 필러 매출 증가는 단일 품목 성장에 그치지 않고 포트폴리오 전반의 확장 효과를 동반한다.

2026년에는 이러한 해외 계약 기반 매출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스킨부스터 등 신규 제품 출시도 예정되어 있다. 단기 매출 기여도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에스테틱 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동방메디컬의 필러 고성장은 단순한 산업 성장 기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주요 파트너와의 중장기 계약을 통한 구조적 매출 확대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경쟁 심화 환경과는 차별화된 매출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6년에도 필러 중심의 성장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미용성형의료기기: 주요 파트너사와의 통합계약을 통한 해외 매출 확대

제품명	주요국가	파트너사	비고
Filler	중국	신양고룹	5년/4,080만 USD
	브라질	PHD	730만 USD (2026년)
	인도	GHC	3년/900만 USD
	태국	AVA PHAMA	
	튀르기예	MEDICAL LINE	
	러시아	R-PHARM	3년/550만 USD
흡수성봉합사	브라질	PHD	5년/1,750만 USD
	미국	DBM	
	러시아	R-PHARM	
	UAE	KMT	

So-Young International Inc.
2,5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의료, 미용 서비스 업체

PHD Do Brasil
27개 도시 3만개 이상의 유통망을 통해 3,000억 이상의 매출을 시현하는 브라질 미용의료기업

IMEIK
중국 미용의료부문 1위 업체(매출 6,000억원) 영업사원 800명, 거래처 8,000개소 확보 회사

자료: 동방메디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브라질, 중국 등 해외 인허가 기반의 추가 성장 옵션 기대

필러 제품의 브라질 ANVISA 승인과 흡수성 봉합사의 중국 NMPA 승인은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성장 옵션

2026년 동방메디컬은 브라질·중국 인허가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추정치에 반영된 성장 요인이 아니라, 인허가를 통한 브라질 및 중국 등 대형 시장 진입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 옵션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브라질과 중국은 규모와 성장성 측면에서 모두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국가다. 브라질은 미용·성형 시술 수요가 높은 국가로, 필러를 포함한 비수술적 시술이 활성화된 시장이다. 중국 역시 인구 규모와 함께 에스테틱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필러 및 흡수성 봉합사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국가에서의 인허가 획득은 단순한 수출 확대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동사는 2026년 중 필러 제품의 브라질 ANVISA 승인과 흡수성 봉합사의 중국 NMPA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기 인허가의 특성상 심사 일정과 승인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승인 이후에도 실제 매출로 전환되기까지는 유통망 구축과 시장 침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6년 실적 전망치에는 해당 인허가에 따른 매출 확대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획득은 해당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필러와 흡수성 봉합사와 같은 소모성 시술재는 시장 진입 이후 반복적인 수요가 기대되는 제품군으로, 초기 허가 확보가 장기적인 매출 기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동사는 주요 국가에서 파트너 기반 유통 구조를 활용해 매출을 확대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인허가 획득 시 기존 해외 확장 전략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브라질과 중국은 각각 중남미 및 아시아 시장 확장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대형 시장에서의 인허가 확보는 인접 국가로의 확장 과정에서도 신뢰도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인지도 및 협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인허가 진행 일정의 지연, 승인 이후 초기 매출 속도 둔화 등은 단기적으로 실적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해당 모멘텀은 단기 실적 가시성보다는 중장기 성장 옵션으로, 향후 승인 여부 및 실제 매출 전환 속도에 따라 기업 가치 재평가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대

자료: 동방메디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제품별 주요 국가 인허가 현황

제품명	인허가 완료 국가	비고
HA Filler 총 41개국 인허가 완료	중국	2022년 인허가 획득 후 신양 그룹과 5년 4,080만 USD 장기계약 체결
	브라질	2026년 상반기 ANVISA 획득 예정 (BGMP 획득 완료)
	유럽	MDR 전환 작업 중 – MEDICAL LINE (튀르키예), BLOOM (영국)
	기타 국가	러시아, 아르헨티나,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조지아, 세르비아,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등
흡수성봉합사 총 48개국 인허가 완료	미국	현지 판매 JV설립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확대 (Benev)
	브라질	2024년 PHD Do Brasil 과 5년 1,750만 USD 장기계약 체결
	유럽	MDR 전환 작업 중 – Zelos (독일), V-Soft (스웨덴), Taumedika (이탈리아)
	기타 국가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도미니카,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등

자료: 동방메디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 2025년 실적 추이

동방메디컬의 2025년 3분기 누적 연결실적은 838억원(YoY +8.8%), 영업이익 115억원(YoY -5.8%), 영업이익률 13.7%(YoY 2.1%p 하락), 지배주주순이익 81억원(YoY +479.3%)이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미용성형의료기기 부문 매출액은 3Q24 누적 457억원에서 3Q25 누적 53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7% 증가한 반면, 한방의료기기 부문 매출액은 3Q24 누적 314억원에서 3Q25 누적 3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하였다. 인도네시아 설비 이전 영향으로 인해 한방침 매출이 다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미용성형의료기기 매출 성장 가속화에 힘입어 전사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필러 매출액은 3Q25 누적 228억원으로 2024년 연간 필러 매출액인 234억원에 육박한 매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익측면에서는 매출총이익률(GPM)이 3Q24 누적 33.4%에서 3Q25 누적 34.1%로 전년동기대비 0.7%p 개선되었으나, 판매관리비율이 3Q24 누적 17.6%에서 3Q25 누적 20.4%로 2.8%p 확대됨에 따라 전사 영업이익률은 3Q24 누적 15.8%에서 3Q25 누적 13.7%로 전년동기대비 2.1%p 하락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미용성형의료기기 부분이 전사 매출 성장을 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한방침 생산설비가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매출 부진 및 비용 상승이 반영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실적 흐름은 2025년 4분기에도 유사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도네시아 이전 설비를 통한 초두물량이 유입되는 2026년 초부터는 한방 부문에서의 매출 및 수익성의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 2025년 연결실적은 1,137억원(YoY +8.2%), 영업이익 163억원(YoY +8.4%), 영업이익률 14.3%(YoY 동일), 지배주주순이익 53억원(YoY +81.4%) 수준을 전망한다.

2 2026년 실적 전망

동방메디컬의 2026년 연결실적은 매출액 1,290억원(YoY +13.4%), 영업이익 216억원(YoY +32.4%), 영업이익률 16.7%(YoY 2.4%p 개선), 지배주주순이익 94억원(YoY +78.0%)을 전망한다. 2026년에는 설비 이전과 비용 구조 정상화가 완료되면서, 미용성형의료기기 부문의 성장성과 한방의료기기 부문의 회복이 동시에 반영되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병행되는 실적 흐름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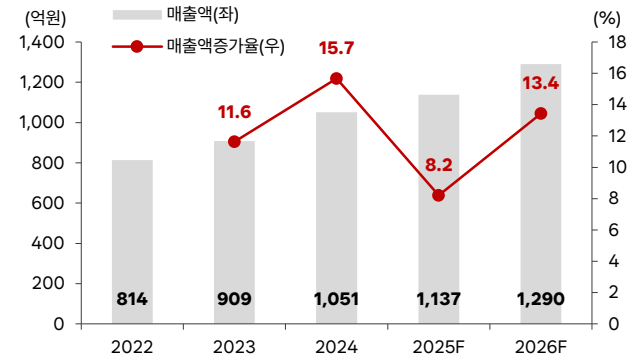
사업부문별로 보면, 미용성형의료기기 부문에서는 필러 매출이 2025년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 성장과 함께 기존 거래선 물량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미국 향 흡수성 봉합사 매출은 JV 지분 확대를 바탕으로 기존 간접 유통에서 직판에 가까운 형태로 유통 구조가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물량 증가뿐 아니라 유통 마진 구조 개선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며, 미용성형의료기기 부문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방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2025년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인도네시아 생산설비 이전 영향이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공장은 2026년 1월부터 초두 물량이 국내로 유입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가동 안정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정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방침 중심의 매출 회복과 함께 생산 효율 개선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이익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 생산설비 가동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과 더불어, 2025년에 반영되었던 중국 공장 관련 일회성 비용이 마무리되고 2026년 법인 철수가 진행되면서 연결 자회사 손실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전사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며, 매출 성장률을 상회하는 이익 증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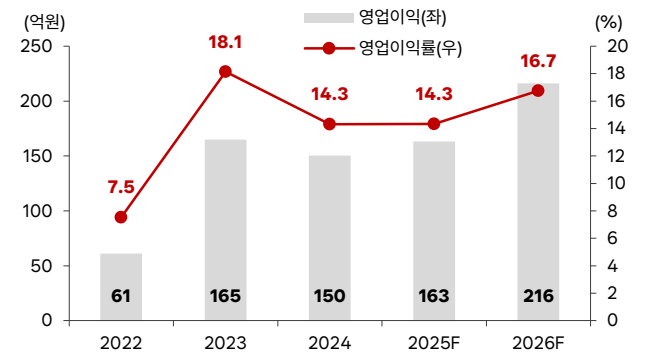
추가로 본 추정치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동사는 2026년 중 필러 제품의 브라질 ANVISA 승인과 흡수성 봉합사의 중국 NMPA 승인을 기대하고 있어, 해당 인허가가 현실화될 경우 중장기적인 추가 매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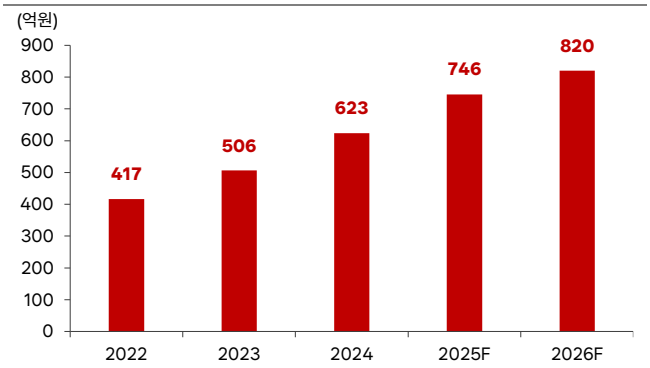
자료: 동방메디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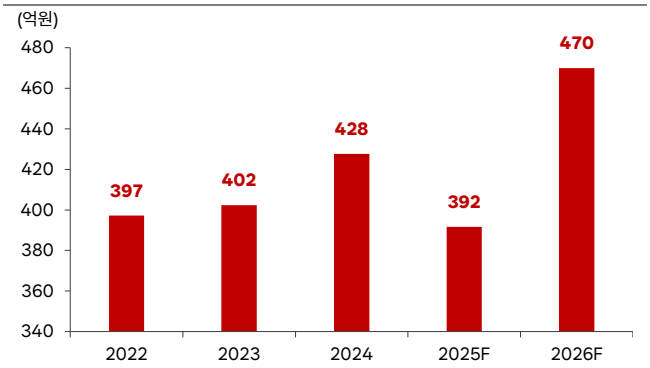
자료: 동방메디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미용성형의료기기 매출액 추이



자료: 동방메디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한방의료기기 매출액 추이



자료: 동방메디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814**	**909**	**1,051**	**1,137**	**1,290**
증가율 (%)	**N/A**	**11.6**	15.7	8.2	**13.4**
미용성형의료기기	417	506	623	746	**820**
한방의료기기	397	402	428	392	**470**
매출원가	**586**	**599**	**709**	**747**	**819**
매출원가율 (%)	72.0	65.9	67.5	65.7	**63.5**
매출총이익	**228**	**310**	**342**	**390**	**471**
매출총이익률 (%)	28.0	34.1	32.5	34.3	**36.5**
영업이익	**61**	**165**	**150**	**163**	**216**
영업이익률 (%)	7.5	18.1	14.3	14.3	**16.7**
증가율 (%)	N/A	169.2	-8.7	8.4	**32.4**
세전계속사업이익	**56**	**125**	**68**	**80**	**136**
(지배주주)당기순이익	**32**	**98**	**29**	**53**	**94**

자료: 동방메디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2026년 실적 개선 가시화, 미용성형 부문의 성장 지속성 확인 시 멀티플 재평가 기대

2025년 예상실적 기준 PER 30.2배, PBR 1.4배, PSR 1.4배 수준

동방메디컬은 전통 한방 의료기기 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용성형 의료기기 사업을 통해 성장성을 추구하는 의료기기 전문기업이다. 2025년은 인도네시아 공장 이전에 따른 일시적인 비용 부담과 매출 공백이 반영된 해로 평가되나, 2026년부터는 한방침 생산 정상화와 미용 필러 고성장이 맞물리며 실적과 수익성의 동반 개선이 기대된다.

동사의 현 주가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선정한 동종기업은 휴메딕스, 제테마, 바이오플러스, 한국비엔씨 등 국내 상장 에스테틱·의료기기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필러·보툴리눔 톡신·에스테틱 제품 또는 관련 바이오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주요 성장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동사의 2025년 예상 실적 매출액 1,137억원, 영업이익 163억원, 지배주주순이익 53억원을 기준으로 한 주가 밸류에이션은 PER 30.2배, PBR 1.4배, PSR 1.4배 수준이다. 동종기업의 경우 2025년 실적 추정치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12개월 Trailing 기준으로 비교하면, 평균 PER 17.2배, PBR 2.6배, PSR 3.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동사는 PER 기준으로는 동종기업 대비 높은 수준, PBR 및 PSR 기준으로는 할인된 수준에 위치해 있다. PER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2025년 순이익이 설비 이전 및 일회성 요인으로 낮은 구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PER은 정상화 이전 이익을 반영한 수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 멀티플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PBR과 PSR 기준에서는 동종기업 평균 대비 보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에스테틱 사업 비중 확대와 필러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동사를 순수 에스테틱 기업보다는 전통 의료기기 사업 비중이 혼재된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방 의료기기 비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상장 초기 기업으로서 실적 트랙레코드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 에스테틱 사업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경쟁사 대비 제한적이라는 점 역시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동사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2025년 일시적 실적 부담과 2026년 정상화 기대가 동시에 반영된 과도기적 구간에 위치해 있다. 2026년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미용성형 의료기기 부문의 성장 지속성이 확인될 경우, 동사의 멀티플은 동종 에스테틱 의료기기 기업 평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동종기업 비교

(단위: 원, 억원, %, 배)

		동방메디컬	휴메딕스	제테마	바이오플러스	한국비엔씨
주가(원) 2026년 2월 9일 종가 기준		8,120	40,700	9,830	5,270	4,670
시가총액 (억원)		1,690	4,571	3,540	3,248	3,194
자산총계 (억원)	2022	1,137	2,271	1,887	1,465	2,325
	2023	1,170	2,200	2,368	1,728	2,362
	2024	1,504	2,498	2,227	2,643	2,671
	2025F	1,914	2,841	N/A	N/A	N/A
자본총계 (억원)	2022	367	1,391	573	1,150	1,901
	2023	471	1,981	731	1,381	2,142
	2024	807	2,285	714	1,477	2,365
	2025F	1,195	2,625	N/A	N/A	N/A
매출액 (억원)	2022	814	1,232	460	567	423
	2023	909	1,523	587	650	810
	2024	1,051	1,619	685	664	892
	2025F	1,137	1,703	N/A	N/A	N/A
영업이익(억원)	2022	61	260	40	253	-101
	2023	165	373	26	280	60
	2024	150	431	41	237	107
	2025F	163	419	N/A	N/A	N/A
영업이익률(%)	2022	7.5	21.1	8.7	44.6	-23.9
	2023	18.1	24.5	4.5	43.1	7.5
	2024	14.3	26.7	6.0	35.6	12.0
	2025F	14.3	24.6	N/A	N/A	N/A
지배주주순이익(억원)	2022	32	211	20	211	-447
	2023	98	248	140	256	257
	2024	29	393	-2	142	133
	2025F	53	491	N/A	N/A	N/A
PER(배)	2022	0.0	13.1	118.7	19.1	N/A
	2023	0.0	14.6	19.9	16.3	9.8
	2024	0.0	12.1	N/A	31.4	21.2
	2025F*	30.2	8.3	N/A	20.2	23.2
PBR(배)	2022	0.0	1.8	4.1	3.7	1.7
	2023	0.0	1.8	3.9	3.2	1.2
	2024	0.0	1.9	3.8	3.2	1.2
	2025F*	1.4	1.7	5.6	1.9	1.4
ROE(%)	2022	8.8	16.1	3.5	22.0	-38.1
	2023	23.5	14.7	21.7	21.2	13.1
	2024	4.6	18.4	-0.3	10.8	6.1
	2025F	5.3	20.8	-6.9	9.4	5.8
PSR(배)	2022	0.0	2.2	5.1	7.1	7.1
	2023	0.0	2.4	4.7	6.4	3.1
	2024	0.0	2.9	4.0	6.7	3.2
	2025F*	1.4	2.8	4.7	3.4	3.3

주: 1) 동방메디컬의 미래전망치는 당사 전망치, 경쟁사의 미래전망치는 컨센서스 기준, 주2) 시가총액과 주가는 2월 9일 종가 기준
2) 동종기업들의 2025년 실적추정치 부재로 2025년 3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12개월 Trailing으로 반영하여 밸류에이션(PER, PBR, ROE, PSR) 비교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 정상화 지연 가능성

향후 인도네시아 공장 분기별 생산 정상화 속도와 원가 구조 개선 여부는 핵심 점검 포인트

동방메디컬의 2026년 실적 개선 전망은 한방침 생산설비의 인도네시아 이전이 계획대로 마무리되고, 공장이 정상 가동 국면에 진입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회사는 2026년 초부터 초두 물량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정상 생산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생산기지의 초기 가동 과정에서는 인력 숙련도, 공정 안정성, 품질 관리 등과 관련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한방침은 의료기기 특성상 품질의 균질성이 중요한 제품으로, 초기 생산 과정에서 품질 안정화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매출 회복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현지 인건비, 물류비,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 역시 단기적으로 원가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 초기 국면에서 실적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리스크는 구조적 수요 훼손에 따른 위험이라기 보다는, 생산 정상화 속도와 관련된 시점(타이밍) 변수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한방침은 반복 수요 기반의 소모성 제품으로, 수요 자체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또한 회사는 기존 자동화 설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 안정화 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초기 생산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 관련 리스크를 단기 실적 변동성 요인으로 인지할 필요는 있으나, 중장기 사업 기반 훼손 가능성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낮다고 판단된다. 향후 분기별 생산 정상화 속도와 원가 구조 개선 여부가 핵심 점검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미용·성형 의료기기 시장 내 경쟁 심화 및 해외 인허가 불확실성

해외 매출 성장률과 주요 인허가 진척 상황에 대한 추적관찰 필요

동방메디컬의 중장기 성장동력은 미용성형 의료기기, 특히 필러 및 흡수성 봉합사 중심의 에스테틱 사업 확대에 기반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은 성장성이 높은 만큼 경쟁 강도와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영역으로, 향후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먼저 경쟁 환경 측면에서 글로벌 필러 시장은 다수의 국내외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가격 경쟁 및 마케팅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일부 국내 필러 업체들의 경우 내수 시장 경쟁 심화로 성장 둔화 또는 수익성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동사는 해외 파트너 기반 수출 중심 구조를 통해 차별화된 매출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나, 특정 국가에서의 경쟁 심화나 유통 구조 변화는 단기적으로 매출 성장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해외 인허가 역시 중요한 변수다. 회사는 브라질 ANVISA 및 중국 NMPA 인허가를 추진 중이며, 승인 시 중장기 성장 옵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인허가는 심사 일정과 승인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승인 이후에도 실제 매출로 전환되기까지는 현지 유통망 구축, 시술자 교육, 마케팅 확대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허가 일정 지연 또는 초기 매출 속도 둔화는 단기 실적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리스크 역시 구조적 경쟁력 훼손이라기보다는 시장 확대 과정에서 수반되는 실행 리스크의 성격이 강하다. 동사는 이미 다수 국가에서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매출을 확대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구조는 아니다. 또한 필러는 반복 수요 기반의 소모성 제품으로, 일시적인 경쟁 심화가 시장 자체의 구조적 성장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814	909	1,051	1,137	1,290
증가율(%)	N/A	11.6	15.7	8.2	13.4
매출원가	586	599	709	747	819
매출원가율(%)	72.0	65.9	67.5	65.7	63.5
매출총이익	228	310	342	390	471
매출이익률(%)	28.0	34.1	32.5	34.3	36.5
판매관리비	167	145	192	227	255
판관비율(%)	20.5	16.0	18.3	20.0	19.8
EBITDA	114	219	212	230	284
EBITDA 이익률(%)	14.0	24.1	20.2	20.3	22.0
증가율(%)	N/A	92.4	-3.3	8.6	23.2
영업이익	61	165	150	163	216
영업이익률(%)	7.5	18.1	14.3	14.3	16.7
증가율(%)	N/A	169.2	-8.7	8.4	32.4
영업외손익	0	-33	-75	-76	-73
금융수익	38	8	20	13	16
금융비용	22	54	113	107	107
기타영업외손익	-16	14	18	18	18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5	-7	-7	-7	-7
세전계속사업이익	56	125	68	80	136
증가율(%)	N/A	122.5	-45.7	18.1	69.2
법인세비용	23	28	37	23	35
계속사업이익	33	97	31	57	101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33	97	31	57	101
당기순이익률(%)	4.1	10.7	3.0	5.0	7.8
증가율(%)	N/A	193.2	-67.9	81.4	78.0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32	98	29	53	94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유동자산	601	634	726	1,116	1,304
현금성자산	188	137	154	497	602
단기투자자산	7	32	18	20	22
매출채권	127	131	168	182	206
재고자산	249	292	327	354	401
기타유동자산	30	41	59	64	72
비유동자산	537	536	778	798	750
유형자산	399	397	559	582	516
무형자산	18	17	18	16	14
투자자산	50	55	89	95	107
기타비유동자산	70	67	112	105	113
자산총계	1,137	1,170	1,504	1,914	2,054
유동부채	591	536	504	521	552
단기차입금	152	139	242	242	242
매입채무	87	43	63	68	77
기타유동부채	352	354	199	211	233
비유동부채	179	163	193	197	206
사채	30	0	0	0	0
장기차입금	108	115	126	126	126
기타비유동부채	41	48	67	71	80
부채총계	770	699	696	719	758
지배주주지분	364	468	799	1,183	1,277
자본금	74	74	87	104	104
자본잉여금	96	96	362	677	677
자본조정 등	5	11	15	15	15
기타포괄이익누계액	-4	-5	6	6	6
이익잉여금	193	292	329	382	476
자본총계	367	471	807	1,195	1,296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05	63	185	80	107
당기순이익	33	97	31	57	101
유형자산 상각비	49	52	59	65	66
무형자산 상각비	4	3	3	2	2
외환손익	4	5	5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29	-137	-18	-24	-42
기타	44	43	105	-20	-2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7	-77	-177	-89	-22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	-11	-52	-6	-11
유형자산의 감소	2	0	1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62	-45	-131	-88	0
기타	-6	-21	5	5	-1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1	-35	-2	332	1
차입금의 증가(감소)	4	-29	3	1	1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3	331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27	-6	-8	0	0
기타현금흐름	0	-1	10	20	20
현금의증가(감소)	69	-50	16	343	105
기초현금	118	188	137	154	496
기말현금	188	137	154	496	602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F	2026F
P/E(배)	0.0	0.0	0.0	30.2	18.1
P/B(배)	0.0	0.0	0.0	1.4	1.3
P/S(배)	0.0	0.0	0.0	1.4	1.3
EV/EBITDA(배)	2.7	1.6	1.3	6.8	5.4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EPS(원)	194	559	167	258	452
BPS(원)	2,081	2,674	4,567	5,685	6,137
SPS(원)	4,955	5,194	6,008	5,561	6,200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8.8	23.5	4.6	5.3	7.6
ROA	2.9	8.4	2.3	3.3	5.1
ROIC	N/A	20.3	8.0	11.3	15.8
안정성(%)					
유동비율	101.7	118.2	144.0	214.0	236.2
부채비율	209.6	148.3	86.3	60.1	58.5
순차입금비율	84.0	71.8	32.5	-6.8	-14.5
이자보상배율	4.7	6.3	7.7	9.0	12.0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7	0.8	0.8	0.7	0.7
매출채권회전율	6.4	7.0	7.0	6.5	6.6
재고자산회전율	3.3	3.4	3.4	3.3	3.4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동방메디컬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2.12	동방메디컬 - 안정적 한방 기반 위에 에스테틱 성장 엔진을 얹다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